

# 주간 변화와 소통

홈페이지: [kttu.or.kr](http://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https://twitter.com/kttu_kr)

## 2013년 상반기 통신시장을 돌아본다!

무료·무제한 경쟁, LTE-A 상용화, 주파수할당 관심열기 최고조

핫 이슈 - 상반기 통신 이슈



### 1. 상반기 달군 최고 핫 이슈는 주파수할당 방안

8월 경매를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할당방안 방향을 4안으로 잡았다. 26일 미래부에 따르면 25일 열린 주파수할당 관련 자문위원회가 5가지 방안 중 4안을 권고했다. 따라서 4안에 따른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공고하고, 기존 발표했던 조건에 따라 할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4안은 1.8GHz KT인접대역인 D대역을 뺀 밴드플랜1과 D대역을 포함시킨 밴드플랜2로 나눠 입찰가가 높은 방향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일 4안과 5안이 발표된 뒤 KT는 상대적으로 5안을 선호해 왔다. 4안이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접대역 확보가 '가능'해 졌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KT는 SKT와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입찰한 가격을 넘어서는 액수를 밴드플랜2 D대역에 배팅하면 확보가 가능하다. 부담은 크지만, 빠른 시일 안에 LTE 광대역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았다.

이와 관련 경쟁사들이 25일 1.8GHz KT의 인접대역 주파수할당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미래부에 제출했다. 경쟁사들의 맹공에 KT는 “재벌기업의 알뜰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SKT는 저대역 황금주파수를 독점하며 이동통신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이미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정책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SKT와 LG유플러스가 특정기업 특혜, 고객편익 훼손, ICT 생태계 붕괴 등을 운운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재벌기업의 생떼”라며 “KT인접대역 주파수 할당만이 공정한 LTE 시장경쟁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2. 휴대전화 가입비 8월중 40% 인하 결정, 2015년 완전 폐지 추진

이르면 올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된다. 또 2015년 가입비가 완전 폐지된다. 이는 임기 초부터 압박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미래부는 10일 최문기 장관이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가입비 인하 및 단계적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통신3사 CEO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가입비 인하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따라서 이통3사는 8월중 이동전화 가입비 40%를 인하하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갈수록 통신사들의 수익구조가 협소해 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 3. 상반기 대세로 떠오른 '무료, 무제한'

상반기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둔 이동

통신서비스 키워드는 아마도 '무제한'과 '무료'일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상관없는 무제한 음성통화요금제를 내놨다. 특히 KT는 같은 요금일 때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교됐다. KT의 완전무한 요금제는 월 기본료 6만 7천원 ~ 12만9천원 4종이며, 모두 이동통신사 상관없이 무제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상대방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걸 때 모두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기본료 6만9천원, 7만9천원의 'LTE 음성 무한자유' 요금제에 가입하면 통신사 상관없이 휴대전화 이용자끼리는 통화가 무제한 무료다. 휴대전화 아닌 집전화 등으로 전화하는 경우를 위해 각 100분의 추가 통화량도 무료로 제공된다.

SKT는 'T끼리 요금제'는 자사 가입자들끼리 통화할 때만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료 3만5,000~10만원까지 총 7종이며, KT도 이와 비슷한 '모두 다 올레' 요금제가 있다.

## 4. 두 배 빠른 LTE-A 시대가 온다!

현재 LTE 속도보다 2배 빠른 LTE-A(LTE-Advanced) 상용화가 시작됐다.

26일 SKT가 LTE-A 상용화를 선언한 데 이어, LG유플러스는 물론 KT도 현재 준비중이다. 더욱이 LTE-A 이용에 따른 통신요금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TE-A는 LTE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이동통신 기술로 최대 150M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다. 기존 LTE보다 2배, 3G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유선광랜(100Mbps)보다 빠르다.

LTE-A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결합기술인 CA(Carrier Aggregation)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파수 2개를 묶어 속도와 용량을 2배 늘리는 주파수 결합기술로, 현재 최대 속도인 75Mbps를 2개 합친 것이 LTE-A 속도로 150Mbps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LTE-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LTE-A를 지원하는 첫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S4로 알려졌다.

## 5. KT, 처음으로 LTE 2위 올라서

월별 이동전화 가입자 집계에서 KT가 처음으로 LTE 2위 사업자 자리를 차지했다.

6월 25일 미래부의 5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KT는 LTE를 상용화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LG유플러스를 제치고 LTE 가입자 2위 사업자로 도약했다.

지난달말 기준 KT LTE 가입자 수는 573만명으로 전월보다 37만명 가량 늘었다. 이는 LG유플러스 568만명보다 5만명 가량 많은 수치다.

경쟁사보다 6개월가량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LTE 2위 자리를 놓고 LG유플러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영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잠시 2위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공식집계에서 2위가 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 1천57만여 명의 LTE 가입자 수를 확보하며 1위 자리를 굳혔다. 3사 LTE 가입자 수는 총 2천200만여 명에 육박한다.

## 6. 가상재화 열기 서서히 지속

이동통신서비스시장 포화로 탈통신 가상재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통신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과도한 보조금경쟁으로 가입자유치 시장에서 누적된 적자구조와 OTT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MVNO사업자, MVoIP사업자 심지어 스마트TV 제조사까지 한정된 시장의 파이를 나눠먹겠다고 달려드는 벼랑끝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한 의지인 것이다.

이석채 회장이 CEO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상재화를 언급한 지 6개월. KT는 6월 25일 가상재화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1위 통신사 비에텔에 케이팝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을 각각 7천개씩 공급하는 음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 이석채 회장은 6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3'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사업자들에게 가상재화(Virtual Goods)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하루빨리 시장선점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그 배경으로 KT 유무선 음성서비스 수익이 2008년 미화 81억달러에서 현재 58억달러로 감소했고, 모바일 메시징서비스 등장으로 문자메시지 사용량도 2/3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통사들이 국내시장에서 인터넷 접속비에 안주해 있을 동안 구글과 네이버 같은 포털업체들은 가상공간을 장악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TV 제조업체들마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디지털콘텐츠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T솔루션, e러닝 등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유통·소비되는 비통신 가상재화로 극복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주파수경매 등이 본격화되는 2013년 하반기, 통신시장은 더 큰 변화와 경쟁이 예고된다.